

2/ 오코토바를 통해 다시 묻는 ‘상징’의 의미

헤이세이 시대 천황의 이중성*

김태진



2016년 8월 3일 천황 아키히토의 오코토바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천황 폐하의 말씀」(象徴としてのお務めについての天皇陛下のおことば) 동영상 캡처

출처: 일본 공내청 홈페이지

김태진(金泰鎭)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전공은 일본 정치사상사,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신체정치(body politic)를 중심으로 신체와 정치, 문화와 정치, 종교와 정치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제국/일본 식민지 조선에서 윤리학의 수용과 전개: 경성제국대학 윤리학 강좌의 사상연쇄」, 『개념과 소통』 31호(2023), 「근대천황제를 둘러싼 정치와 종교: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론의 지성사적 의미」, 『일본비평』 28호(2023), 「메이지 천황의 '신성'함의 기원들: 메이지헌법 신성불가침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일본학보』 129호(2021), 「천황의 세 신체: 메이지 천황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일본사상』 40호(2021)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4.30.50>

1. 천황 아키히토의 생전퇴위와 오키토타(おことば)

2016년 8월 8일, 천황 아키히토¹는 생전퇴위와 관련된 오키토타²를 TV를 통해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직접 발표했다.³

천후 70년이라는 큰 마디를 지나 2년 후에는 헤이세이 30년을 맞습니다. 저도 80세를 넘어 체력적인 면 등에서 다양한 제약을 느끼기도 하고, 최근 몇 년간 천황으로서 스스로 행보를 돌아봄에 본인이 지나온 길과 직무(お務め)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천황 역시 고령화 된 경우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천황이라는 입장에서 현재의 황실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삼가면서, 나 개인으로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⁴

천황의 생전퇴위는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오키토타를 계기로 생전퇴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천황의 공무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유식자(有識者) 회의’가 설치되었다. 2017년 5월 21일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식자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청취회(聴取会) 때 보수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천황은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등의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천황 아키히토는 “청취회에서 비판받은 것은 충격이었다”

1 천황 아키히토(天皇明仁)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원호가 바뀌면 기존의 원호를 추호로 삼아 왔던 전통에 따라 이전의 천황은 헤이세이 천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번에는 생전퇴위를 통해 원호는 바뀌었지만 이전 천황이 살아 있는 채로 퇴위하게 되면서 헤이세이라는 원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퇴위한 천황은 상황(上皇)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현재 명칭으로는 상황 아키히토라고 써야 하나 이 글에서는 헤이세이 시기 천황이었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천황 아키히토(天皇明仁)라는 명칭으로 쓰도록 한다.

2 ‘오키토타’(おことば/御言葉)는 말(ことば/言葉)의 정중한 표현으로 특히 천황이나 황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가리킨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 후 기존의 ‘칙어’(勅語)라는 말을 대신해 천황의 공식 발언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말씀’으로 번역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오키토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간상 11분 2초에 해당하는 비디오 메시지는 천황의 오키토타 중에서 가장 긴 발언이었다.

4 궁내청 홈페이지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12>(이하 검색일자: 2024년 1월 5일로 동일).

는 강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청취회에서 보수계 전문가들로부터 “천황가는 계속 이어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천황의 역할로 그것 이상 생각할 만한 게 무엇이 있겠는가.”와 같은 발언이 나왔고, 재해 지역 위로 방문 등의 공무를 축소해서 부담을 줄이고, 궁중 제사만 계속한다면 퇴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⁵ 결국 종신재위(終身在位)와 남계 남자(男系男子)에 의한 황위 계승을 정한 메이지 이후의 황실전범을 수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특례법을 제정해 이번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방식으로 생전퇴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천황 아키히토의 퇴위식이 진행되어 지금의 나루히토 천황으로 양위하게 된다.⁶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퇴위 의사 표명만이 아니라 오코토바의 명칭인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천황 폐하의 말씀〉(象徴としてのお務めについての天皇陛下のおことば)이 보여 주듯이 천황이 직접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는 데 있었다.⁷ 실제로 이 발표에서 퇴위나 양위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발언에서 주목할 바는 그동안 수동적으로 전후 헌법하의 상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던 직무를 천황 본인이 직접 문제 제기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런 점에서 천황의 생전퇴위 오코토바는 생전퇴위가 가능한가 내지 바람직한가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재했던 ‘상징천황제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⁸ 왜냐하면 생전퇴위는 근대 이래의 천황제가

5 이에 대해서는 시라이 사토시, 한승동 옮김, 『국체론』, 메디치, 2020, 31~32쪽.

6 천황의 생전퇴위 오코토바 발언의 배경과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岩波書店, 2019, 2~23쪽. 천황 아키히토가 퇴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천황은 2010년에 참여회의(参与会議)에서 퇴위 의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그때 역시 공무에 대역을 세우는 방식이어도 형식만 천황이면 괜찮다는 반응이 있었고 천황은 이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吉田裕 外 編, 『平成の天皇制とは何か: 制度と個人のはざまで』, 岩波書店, 2017, 179~180쪽.

7 천황의 퇴위 오코토바에 대해서는 많은 기존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茂木謙之介, 『SNS天皇論-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講談社選書メチエ, 2022; 河西秀哉, 『近代天皇制から象徴天皇制へ: 象徴への道程』, 吉田書店, 2018, 국내에서도 김승배, 「권력이 아닌 권위의 침투: 상징 천황에 관한 고찰」, 『문화와 정치』 Vol. 8 No. 2, 2021; 이상진,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체제와 「생전퇴위」」, 『일어일문학』 92집, 2021 등.

8 시라이 사토시, 『국체론』, 36쪽.

규정하고 있는 종신천황제를 수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전퇴위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상징천황제하의 상징이란 어떠한가 하는 가라는 상징천황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천황 아키히토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헌법 파괴적인 아베’와 ‘헌법 수호적인 천황’이라는 구도 속에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⁹ 천황의 퇴위 관련 속보가 나온 날인 2016년 7월 13일, 구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 자민당에 입당해 1989년 이후 오랜만에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원외, 원내 양쪽에서 완패한 비자민세력은 천황의 퇴위 표명을 개헌 지향의 아베 정권에 대한 항의의 차원으로 해석해 반아베의 깃발로 사용하기 시작한다.¹⁰

이러한 흐름은 일본을 대표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보이는 데, 우치다 다쓰루(内田樹)는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토대로 천황의 발언을 개헌을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단정하고, 본인이 ‘천황주의자’가 되겠다고까지 표명한다. 천황을 일시적으로 권력을 지닌 총리와 비교해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파악해 국민의 도덕적 중심일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었다.¹¹ 시라이 사토시(白井聡) 역시 천황의 생전퇴위 표명을 미일관계의 허구성에 의문을 던지는 발언으로 이해한다. 천황 아키히토는 아베 신조를 수반으로 한 자민당 정권 및 그 주변이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며 전후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신중하지만 명백한 태도를 표명했는데, 이는 전후 민주주의의 파괴·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전퇴위 오키토바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후 민주주의의 질서를 붕괴의 심연에서 구해 내는 것”이라고까지

9 이는 한국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뤄지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 ‘생전퇴위’ 진짜 이유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9878>, “‘평화주의자’ 아키히토 생전퇴위. 일 우경화 누가 막나”,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98> 등 참조.

10 요나하 준, 이충원 옮김, 『헤이세이사 1989~2019: 어제의 세계, 모든 것』, 마르코폴로, 2022, 546~547쪽.

11 물론 이것은 천황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황을 통해 입헌민주제와 천황제의 양립과 ‘영적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http://blog.tatsuru.com/2018/07/22_1545.html 참조.

자 동시에 소비자라는 관점이 그것이다.¹⁵ 또한 천황이라는 존재가 일본사회에서 무의식적이고 신체적인 정동(affect)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오코토바가 말씀으로서의 텍스트만이 아닌, 본인의 신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내는 영속적·집합적·종교적 신체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 본인의 오코토바의 발언 속에서 어떻게 본인을 재현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넓은 의미의 ‘상징’과 ‘신체’라는 개념을 통해 헤이세이 시대 천황제의 이중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징천황제의 ‘상징’의 개념사

우선 ‘상징’이라는 말의 정치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천황 재위 30주년 기념식전에서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오코토바에서 의례적인 발언이 반복되는 것들에 비해 이 발언에서는 천황의 다소 강한 어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천황으로 즉위한 이래 오늘까지 매일매일을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상징으로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정해진 상징으로서의 천황상을 모색하는 길은 끝없이 멀기에, 앞으로도 저를 이어갈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그리고 나아가 다음 시대의 상징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찾아서, 앞선 시대의 상징상을 계속 보완해 나가기 바랍니다. 천황으로서의 지금까지 직무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행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일은 국가 조직의 동의와 지지하에 행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의 직무를 완수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통

15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18쪽. 그는 표상연구에서 중요한 네 가지를 지적하며 1. 생산, 소비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분석, 2. 이미지에 관한 분석, 3. 문화의 ‘정치’성에 주목, 4. 비평이론의 참조를 들고 있다.

합의 상징으로서 자부심과 기쁨을 갖도록 해 주는 우리나라 국민의 존재와,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일본인이 만들어 온 이 나라가 가진 민도(民度) 덕분이었습니다.¹⁶

천황 아키히토는 상징천황제의 존재방식을 시대의 상황에 맞춰 보완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해진 상징으로서의 천황상을 모색하는 길은 끝없이 멀기에, 앞으로 저를 이어갈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나아가 다음 시대의 상징이 어떠해야 바람직한지 그 모습을 찾아서, 앞선 시대의 상징상을 계속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듯이 상징천황제하에서 ‘상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시라이 사토시는 이를 ‘동적 상징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¹⁷ 이에 대해서는 천황 아키히토만이 아니라 현재 나루히토 천황 역시 꾸준히 상징 개념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¹⁸

그런 점에서 상징이란 말이 어떻게 삽입되게 되었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천황 아키히토의 고민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 상징이란 개념 자체가 처음 그 등장부터 애매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징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부터 상징이라는 ‘문학적 냄새 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마쓰모토 조지(松本烝治) 국무대신이 “헌법에 뭔가 문학적 표현이 나와 이상한 기분”이라고 지적했던 일화가 보여 주듯이 상징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 역시 논자들마다 각기 다른 이해 방식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전후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징이란 말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16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42#152>.

17 시라이 사토시, 『국채론』, 37쪽.

18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198~199쪽.

에 대해서는 기존연구들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다.¹⁹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서, 영국,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기원이 언급된다. ‘천황·조약·수권 규정’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천황의 장을 담당한 리처드 풀(Richard Poole)의 회상에 의하면, 상징이란 말은 영국 연방이 자유로운 연합을 정한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전문에서 ‘왕위’(the Crown)는 “영국 연방 구성국의 자유로운 연합의 상징이고, 연방구성국은 왕위에 공통된 충성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입헌군주제 모델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또한 배젓(Walter Bagehot)의 1867년 저작 『영국헌정론』(*The English Constitution*) 역시 참고가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같은 위원회에서 상징 규정을 발안했던 육군 중위 넬슨(John A. Nelson)이 이 책을 참고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군주는 당파와는 무관계하다. 따라서 적의를 가진다든지, 신성함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일 없이 신비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군주는 서로 싸우는 당파의 대립감정을 융합시킬 수 있고,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눈에 보이는 통합의 상징(visible symbol of unity)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왕의 지위가 의례적이라는 뜻으로 ‘상징’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여기서 배젓의 논의가 영국 헌정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인 ‘존엄적 부분’(dignified parts)과 국가의 사실상 활동에 의해 사람들을 지배하는 부분인 ‘실천적 부분’(efficient parts)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국왕이 군림하는 ‘존엄적 부분’과 수상을 따르는 내각이 통치하는 ‘실천적 부분’의 교묘한 혼합체제로서 영국의 헌정체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것이 단순히 양자의 분리를 위해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양자의 균형을 지키고 양자의 구분을 막연히 두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요체라고 그가

19 상징 개념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河西秀哉, 『「象徵天皇」の戦後史』, 講談社, 2010; 유지아, 「메이지 유신 150년과 천황의 원수화」, 『일본역사연구』 48집, 2018; 유지아, 「전후 상징천황제의 정착 과정에 나타난 천황대권의 모호성」, 『일본공간』 11, 2012; 김승배, 「권력이 아닌 권위의 침투: 상징 천황에 관한 고찰」 등.

20 下條芳明, 「「象徵」の由来、受容および普及をめぐる: 日本特有「二権分立制」の再生」, 『法政治研究』 3, 2017, 24쪽, 34쪽.

설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한 천황의 상징성을 단순히 권위와 권력이라는 이분법적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없는 면이 있다.²¹

좀 더 직접적으로는 맥아더와 펠라스(Bonner Fellers)의 논의 속에서 상징이 들어가게 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펠라스는 맥아더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들의 천황은 조상의 미덕을 전달하는 민족의 살아 있는 상징(the living symbol of race)이다. 천황은 과오도, 부정도 범하지 않는 국민정신의 화신이다. 천황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거나 “일본 국민은 상징적 국가원수(the symbolic head of the state)로서 천황을 선택한 것”이라는 말들을 남기고 있다. 맥아더 역시 “천황은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a symbol which unites all Japanese)이고, 천황을 배제한다면 일본은 와해될 것이다.”라고 발언한다. 이후 1946년 GHQ 초안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으로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the symbol of the state and of the unity of the people)이라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이는 현행 일본국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²² 즉 그들의 의도 속에서도 ‘사회적 군주’로서 천황이라는 상징성이 필요했으며, 이를 단순히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아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적 존재로 남기고자 했던 것만도 아니었다.

천황을 상징으로서 설명하는 논의는 영미식의 루트만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연원 역시 갖는다.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같은 지식인들이 이미 전전부터 상징이라는 개념 속에서 천황을 위치지우려 하는 흐름이 있었던 점은 자주 지적되어 왔다. 쓰다의 경우 “황실은 국가와 함께 영구하고, 센고쿠시

21 下條芳明, 「『象徴』の由来, 受容および普及をめぐって: 日本特有「二権分立制」の再生」, 34쪽;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への道: 米国外務省と其の周辺』, 岩波書店, 1989, 172~175쪽. 나카무라는 그루(Joseph Grew)의 여왕별 아이디어 역시 배정의 논의에서 왔음을 지적한다.

22 下條芳明, 「『象徴』の由来, 受容および普及をめぐって: 日本特有「二権分立制」の再生」, 27~29쪽. 이와 관련해서 요시다 시게루는 천황의 지위를 표현하는 상징이라는 자구가 각료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시데하라 총리가 폐하를 배알해, 헌법개정에 관한 총사령부와의 절충 전말을 상주해, 폐하의 의견을 물었단바, 폐하 스스로 ‘상징으로 좋지 않은가’라고 답하셨기 때문에 이 말에 용기를 얻어 각료 일동이 상징이라는 자구를 양해하게 되었다. 고로 이는 전적으로 성단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라 해도 좋다.”라고 회상한다(吉田茂, 『回想十年』 2卷, 新潮社, 1957, 32쪽).

대(戰國時代)와 같이 정치적으로 일본이 거의 분열되었던 세상에서도 황실의 존재는 영원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용어로는 황실은 영원의 생명을 갖는 국가의 상징이며, 국가의 독립과 통일의 상징이며, 또한 국민정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쓰다는 패전 후인 1946년 1월, 일본 국헌법이 아직 초안의 형태도 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민주국가에서 천황의 역할을 민주주의 정치사상으로, 국민의 의사를 체현하는 것으로서 “국민적 통합의 중심이고, 국민적 정신의 살아 있는 상징”으로서 제시한다.²³

그러나 전후 상징이란 말이 단순히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거나, 일본적 맥락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실제로 상징이란 개념이 패전의 맥락 속에서 천황을 규정하기 위한 용어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기초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가 “국왕은 국권의 초상(シンボル)이다. 따라서 독일 각국의 헌법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국왕은 일체의 제반 정권을 총괄해, 헌법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자”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권의 초상’이란 말에 ‘심볼’이라는 후리나가를 달아 메이지 천황을 일종의 ‘상징’(symbol)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헌법 제1조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라는 조항의 ‘통치한다’(統治ス)란 개념이 원래 초안에서는 ‘알다’(しる/知る)라는 어원을 가진 ‘시라스’(シラス)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은 대일본제국헌법하의 통치성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군주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천황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²⁴

이뿐 아니라 이후 천황기관설 논쟁에서도 보이듯이 천황을 국가의 기관으로 볼 것인지, 국가 주권 그 자체로 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천황을 일

23 下條芳明, 「「象徴」の由来, 受容および普及をめぐる: 日本特有「二権分立制」の再生」, 25~26쪽.

24 메이지 시기 representation 개념의 번역과 관련해 대표/대의/상징이 경합하는 과정으로서 김태진, 「대의제를 둘러싼 번역과 정치: representation의 번역어로서 대의/대표/상징」, 『정치사상연구』 27(2), 2021; 메이지 시기 대의정부론의 수용에 대해서는 김범수 외, 『근대 일본과 번역과 정치: 대의정체 개념의 수용과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시라스’ 논의와 관련해서는 田村安興, 「象徴天皇と神話: シラスとウシハクをめぐる」, 『高知論叢』 第100号, 2011.

종의 국가라는 생명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1930년대까지 줄곧 논쟁적이었다.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 데모크라시 전 기간에 걸쳐 계속된 국가론과 관련된 천황주권론과 천황기관설의 오랜 대립 속에서 천황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결국 천황이 주권의 주체라는 방식으로 정리되지만, 이 과정에서 천황을 일종의 ‘기관’(organ)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논의는 이른바 ‘국체’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이러한 이중성의 결합은 이후에 논의하듯이 전전과 전후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²⁵

그렇다고 볼 때 전후 헌법에서의 상징 개념 역시 단순히 권력을 배제하고 상징적 권위만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볼 수 없다.²⁶ 이는 앞서 보았듯이 상징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아가 메이지 시기의 헌법이나 같은 시기 천황의 성격을 상징으로 읽어 내고자 하는 작업 속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만세일계’ 속에서 천황의 정당성을 근거 지운 대일본제국헌법과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서 근거 지운 전후 일본국헌법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일본국헌법으로의 변화가 단순히 ‘통치자에서 상징으로’가 아니라 ‘통치자 겸 상징에서 단순한 상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은 앞서의 논의들을 살펴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²⁷ 나아가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의 천황과 이후의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의 양상을 주권자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축소시키는 것만이 아닌, 그때의 천황이 상징으로서 갖는 정치적 의미는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표(representation) 개념이다. 표상 내

25 石川健治, 「権力とグラフィクス」, 長谷部恭男・中島徹, 『憲法理論を求めて: 奥平憲法学の継承と展開』, 日本評論社, 2009. 천황기관설 논쟁 속에서 대표 개념과 관련해서는 김태진, 「우주 대생명의 표현으로서 신도론: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론의 지성사적 의미」, 『일본비평』 28호, 2023.

26 권력과 권위를 혼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파악하는 시도는 오히려 일본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맥락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다음의 연구주제로 삼고자 한다.

27 下條芳明, 「象徴天皇制の制度と理論: 代表制論, 君主論および元首論の現代的脈絡において」, 『商経論叢』 51(2), 2010, 22쪽.

지 재현의 문제가 넓은 의미의 재현한다(re-present, 再-現)는 개념, 즉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대의/대표/상징 개념과 관련된다고 할 때 대표로서의 상징의 개념 역시 전전과 전후의 관련성 속에서, 보다 긴 역사적 시야를 두고 정치적 구상력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²⁸ 즉 상징이라는 개념을 보다 넓은 차원의 정치적 대표 개념과 연관해 생각해 본다면, 상징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욕망의 재현과 무관하지 않다. 피트킨(Pitkin)은 대표에 관한 그의 고전적 저서에서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acting for)하는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현시(standing for)로서의 대표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묘사적(descriptive) 대표와 상징적(symbolic) 대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후자의 경우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행위가 반드시 대표되는 자의 동의 혹은 선거와 같은 과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상징으로서 대표한다는 것은 일종의 담론적으로 구성된 정체성과 이익의 생산자인 동시에 생산물이라 할 수 있다.²⁹ 이처럼 상징으로서의 천황 역시 상징이란 말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욕망, 의지가 재현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할 때, 상징천황제라는 전후 일본의 체제가 단순히 정치적 권능을 제거한 비정치적인 천황상에 기반한다는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³⁰

28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미에서 representation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대표’(代表)라는 용어는 대표자의 역할에 대해 순전한 대리에서 완전한 자율 사이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대의’(代議)는 대표제나 대표자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의논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적 개념에서 ‘대표/대의’란 인민의 뜻이건, 하늘의 뜻이건, 이성의 뜻이건, 왕의 뜻이건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징 역시 정치적 의사를 재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9 Hanna Fenichel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p. 11~12; 상징적 대표 개념에 대해서는 Kristian Stokke and Elin Selboe, “Symbolic Representation as Political Practice,” *Rethinking Popular Representation*, Palgrave Macmillan, 2009, pp. 59~60. 모테기 겐노스케 역시 천황의 표상을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 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상이란 말은 representation의 번역어로서 ‘표’(表)하고 ‘상’(象)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때 이 말 자체가 표현, 초상, 화상, 대표권, 대리권, 대의사(代議士) 제도, 대의사 선출권, 의원단, 연출, 상연 등 다양한 역어로 번역되는 것만큼 다의성을 내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茂木謙之介, 『SNS天皇論-ポップカルチャー=スビ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16쪽.

30 이 점에서 이번 『일본비평』 제30호의 특집으로 함께 실린 모테기의 글과 겹치면서도, 그 글이 주로 정부와 천황 사이의 일종의 정치투쟁과 공범관계라는 관점에서 천황을 정치적 행위자로서 다루는데 초점을 둔다면 이 글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천황이 무엇을 재현/대표하고자 하는가라는 문제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상징으로서의 천황 아키히토의 신체

1) 고령화하는 신체와 재생하는 신체

천황이라는 왕의 신체는 재현의 대상(subject)이자, 재현의 주체(author)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황의 오코토바에서 ‘신체’에 관한 언급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³¹ 정치적 의미의 상징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국기, 국가, 국장(國章) 등의 ‘물적 상징’과는 달리 천황은 ‘인격적 상징’이란 점에 차이가 있다.³² 이때 천황의 신체는 단순히 재현되는 과정만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과 말, 표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처럼 보이는 신체에서 보여 주는 신체로의 전도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천황은 단순히 보이는 오브제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재현전(再現前)해 가는 주체가 되어 간다. 특히나 모테기가 분석하듯이 2010년대 이후 언설공간의 변화에 쌍방향적으로 표상이 생성되는 미디어 상황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천황, 황실 표상의 집적을 가능하게 했다. 즉 살아 있는 육체를 갖고, 의사를 가진 주체로서의 존재방식이 표상 행위를 거쳐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들어가, 거기서 생성된 이미지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반복되고, 증폭되고,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표상/재현/대표’(re-presentation)가 ‘현실/현재’(present)를 재창조하게 된다.³³

즉위 이래, 저는 국사행위를 행하는 것과 함께, 일본국 헌법하에서 상징이라 자리매김된 천황의 바람직한 방식을, 매일같이 모색하며 지내 왔습니다. 전통의 계승자로서 이를 지켜 나갈 책임에 깊이 생각이 이르러, 한층 매일 새로워지는

31 천황의 신체성에 주목한 최근 연구들로서 長崎浩, 『国体と天皇の二つの身体: 未完の日本国家物語』, 月曜社, 2022; 大澤真幸, 「天皇制から読み取る日本人の精神のかたち」, 原武史 外, 『これからの天皇制: 令和からその先へ』, 春秋社, 2020.

32 下條芳明, 「『象徴』の由来, 受容および普及をめぐる: 日本特有「二権分立制」の再生」, 23쪽.

33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17쪽. 이는 모테기가 분석하듯이 코로나 이후의 온라인 행행(行幸)이 빈번해지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3~4쪽.

일본과 세계에서 일본의 황실이 어떻게 하면 전통을 현대에 되살려, 생생하게 사회 안에 내재하게 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중에,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두 번의 외과수술을 받고, 이에 더해 고령으로 체력 저하를 느끼게 된 때부터, 앞으로 종래와 같이 중한 직무를 맡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나라에게도, 국민에게도, 또한 나의 뒤를 이을 황족에게 좋을지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80세를 넘어, 다행히 건강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점점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함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전신전령(全身全靈)으로 상정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³⁴

천황은 몇 년 전에 두 번의 외과수술을 받고, 이에 더해 고령으로 체력 저하를 느끼게 된 때부터 종래와 같이 중한 직무를 맡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나라에게도, 국민에게도, 또한 자신의 이후를 걸어 나갈 황족에게 보다 좋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미 80살을 넘었지만, 다행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점점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함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전신전령’(全身全靈)으로 상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칸토로비치(Kantorowicz)가 말하고 있듯이 왕의 신체는 단순히 자연적 신체(body natural)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신체와 구별되는 정치적 신체(body politic)는 자연적 신체가 겪는 결함들에서 자유롭다.

왕은 그 자신 안에 두 신체-자연적 신체(body natural)와 정치적 신체(body politic)를 갖는다. 그의 자연적 신체(만약 그것이 그 자체로 고려된다면)는 가사(可死)의 신체(body mortal)로, 본성상 내지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약점에 복종되며, 유아기나 노년기의 허약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신체에 일어나는 결함들에 노출된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신체는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34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12>.

수 없는 몸으로, 정치조직이나 통치기구로 구성되며, 인민들을 지도하고,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신체는 자연적 신체가 종속되는 유아기나 노년기, 그리고 다른 자연적 결합이나 허약함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왕의 정치적 신체로서 수행하는 것은 그 자신 자연적 신체에 내재하는 어떤 무능력에 의해서도 무효화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것이다.³⁵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나 왕의 신체는 노년기의 허약함과 같은 요인으로서는 무효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immortal)의 신체다. 일본적 맥락에서 보자면 그것은 죽음 이후 대상제(大嘗祭)를 통해 새로운 신체로 이어지는, 신기(神器)를 이어받는 그릇으로서 전해지는 정치적 신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황 아키히토는 본인의 평생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개인적 신체의 고령화로 정치적 신체가 담당해야 할 직무에서 겪게 될 곤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나루히토 천황으로 바뀐 뒤에도 2020년 기자회견에서 공적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황족이 고령화나 결혼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질문받는다든지, 근대에 들어 가장 고령의 나이로 즉위하게 된 상황에서 환갑을 맞은 기분을 들려 달라고 질문받는 것에서 보이듯이 일본사회 내에서 황실 자체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³⁶ 고령화 문제가 일본사회의 큰 문제임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천황이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고령화한 일본을 표현하는 방식은 본인을 어떻게 위치짓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는 천황가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령화 속에서 논의되고 있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생전퇴위 오코토바에서

35 Ernst H. Kantorowicz, "A New Preface," William Chester Jordan,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Princeton UP, 1997[1957], p. 7. 일본에서의 천황의 신체론과 관련해서는 김태진, 「천황의 세 신체: 메이지 천황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일본사상』 40호, 2021.

36 <https://www.kunaicho.go.jp/page/kaiken/show/30>.

도 천황 아키히토는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 천황도 또한 고령이 된 경우”를 지적하며 단순히 천황만이 늙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고령화한 것은 천황만이 아니었다. 2002년 9월 26일 ‘전국노인클럽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노인클럽대회’의 오키토타에서 노인 클럽이 전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각의 지역에 밝은 장수 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기여해 왔음을 치하하며, 이 세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분의 세대는 전쟁 중과 전후의 고난을 극복한,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의 세대로, 근년 고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하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믿음직한 일입니다. 각지의 노인 클럽이 건강, 우애, 봉사를 기둥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 임하고, 나이가 스스로 체험한 역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전하는 등 세대를 초월한 교류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이 풍부한 사회를 발전시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³⁷

저물어 가는 헤이세이 시대 고령화하는 일본사회는 고령화하는 천황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회 변화요인이었다. 천황 아키히토의 말처럼 “근현대 들어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갖고 있지만, 이는 또한 “결코 평탄한 시대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곤란에 직면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는 “세계가 기후 변동의 주기에 들어가, 일본 역시 많은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화, 소자화(少子化)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 현상에 직면하게 했다”고 파악한다.³⁸ 이외에도 그가 오키토타의 곳곳에서 특히 나이 많은 전쟁 부상자들, 재난 피해자들, 복지시설

37 <https://www.kunaicho.go.jp/okotoba/01/okotoba/okotoba-h14e.html>.

38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42#152>.

이나 병원들을 방문할 때마다 ‘고령자’들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천황으로서의 직무가 고령화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천황 아키히토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늘어 가는 육체성에 대한 반발로 시작해, 어떻게 재생하는 정치적 신체를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였다. 쇼와 시기와 같은 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대를 지나 이미 불확실성의 세대로 접어드는 헤이세이 시기는 일본이라는 신체 자체의 고령화와 함께 맞물려 황실의 위기를 낳았다.

천황의 고령화에 따른 대처방법이 국사행위나 그 상징으로서 행위를 영구히 축소시키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천황이 미성년이거나, 중병 등에 의해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황의 행위를 대행하는 섭정(摂政)을 두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천황이 그 입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충분히 담당하지 못한 채로 생애를 끝맺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황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황이 건강을 해쳐, 심각한 상황에 서게 되는 경우, 이제까지 보아 왔듯이 사회가 정체되고 국민의 삶에도 다양한 영향이 미쳐질 것이 염려됩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황실의 관습으로서 천황의 종언을 맞이하는 장례행사(殯)가 매일 거의 2개월에 걸쳐 계속되고, 그 후 장례의식(喪儀)에 연관된 행사가 1년간 계속됩니다. 그 다양한 행사와 새로운 시대에 관련된 여러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행사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남겨진 가족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가슴에 오가는 상념이 있습니다.³⁹

천황 아키히토가 밝히고 있듯이 그는 고령에 따른 업무를 단순히 섭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⁴⁰ 현재의 황실전범 16조에도

39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12>.

40 물론 기존에 천황의 생전 양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메이지 시대 황실전범 제정 시에 양위제를 넣을 것인지 의견이 대립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오히려 아스카 시대에서 에도 시대까지는 절반 이상의 천황이 생전퇴위하던 것이 메이지 시기 구황실전범 제10조에서 천황의 종신재위를 정식으로 규

섭정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어 “천황이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 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라고 하여 ‘신체의 중환’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천황 아키히토는 섭정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⁴² 그 결과 앞서 설명하였듯이 섭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나 관련 지식인들과 이를 제도화하고자 했던 천황 아키히토의 절충이 황실전범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1대에 한정해 고령의 문제로 생전양위가 결정된 것이다.⁴³

천황 아키히토가 걱정하는 바는 천황이 건강을 해칠 경우나 더욱이 천황의 죽음의 경우가 문제 된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오키노보리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헌법 아래, 천황은 국정에 관련된 권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긴 천황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황실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상징천황의 직무가 항상 중단됨 없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기를 오로지 바라며, 여기에서 저의 마음을 말합니다.”라고 밝히듯이 천황의 업무/정치적 신체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정하게 된 것으로, 이번 천황의 생전퇴위는 메이지 이전의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황위 계승 문제와 종신재위제와 관련해서는 가사하라 히데히코, 유지야 유키킨, 『상정천황제와 황위 계승』, 경인문화사, 2020; 하라 다케시, 박이진 외 옮김, 『여제의 일본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41 메이지 시기 제정된 황실전범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天皇久キニ亘ルノ故障ニ由リ大政ヲ親ラ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皇族會議及樞密顧問ノ議ヲ經テ攝政ヲ置ク」(19조), 「攝政又ハ攝政タルヘキ者 精神若ハ身體ノ重患アリ又ハ重大ノ事故アルトキハ皇族會議及樞密顧問ノ議ヲ經テ其ノ順序ヲ換フルコトヲ得」(25조). 현재의 황실전범에서는 황족 2명,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의 장 및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명으로 구성되는 황실회의를 두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황사(황위 계승자)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황위 계승 순서를 바꾸는 건, 천황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을 세우는 건, 섭정이나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이나 섭정순위를 변경하는 건, 천황에게 일어난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해결되어 섭정을 폐하는 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2 천황 아키히토는 그의 친구 아카시 모토쓰구(明石元紹)와의 통화에서 퇴위 문제가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를 포함해 양위가 가능한 제도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28쪽.

43 실제로 아베 정권은 황실전범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현행 헌법이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일본국헌법으로 크게 변했지만, 황실전범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후의 황실전범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된다. 原武史, 「『平成流』とは何だったのか」, 27쪽.

또한 동시에 주목할 점은, 천황은 고령화를 이유로 자신의 상징으로서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전통의 계승자”로서 “일본의 황실이 어떻게 하면 전통을 현대에 되살려, 생생하게 사회 안에 내재하게 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 가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 밝히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서 본인의 직무가 고령화로 인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각과 본인의 죽음과 새로 등장하는 천황가의 재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난점 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천황이 건강을 해쳐 심각한 상황에 서게 되는 경우, 이제까지 보아 왔듯이, 사회가 정체되고 국민의 삶에도 다양한 영향이 미쳐질 것이 염려” 된다는 것은 쇼와 말기 천황의 중환에 따르는 자숙이 일어나 국민 생활에 대한 다양한 영향이 있었던 상황과, “나아가 지금까지 황실의 관습으로서 천황의 종언을 맞이하는 장례행사가 매일 거의 2개월에 걸쳐 계속되고, 그 후 장례의식에 연관된 행사가 1년간 계속”되는 와중에 “그 다양한 행사와 새로운 시대에 관련된 여러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행사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남겨진 가족은 매우 힘든 상황”은 단순히 장례행사와 즉위행사가 겹치는 것 이외에 정치적 신체의 이양과 관련된 문제를 안게 됨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⁴⁴

이는 단순히 섭정이라든지, 업무의 조정과 같은 방식이 아닌 이러한 직무를 잘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신체로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옮겨 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천황 아키히토와 일본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자각은 상징천황제하에서의 직무를 새롭게 규정하는 동시에 저물어 가는 헤이세이 시대에 생전퇴위라는 제도로서 황실을, 정치적 신체를 재생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끌었다.

44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45쪽.

2) 말하는 신체와 듣는 신체

그렇다면 이렇게 구성되는 정치적 신체의 성격을 보기 위해 오코토바라는 형식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황이 국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오코토바라는 형식 자체가 상징천황제 이후에 나온 것이었다. 그 이전의 천황의 발언은 칙어(勅語), 조서(詔書), 칙유(勅諭), 상유(上諭)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서의 전통적인 문서 방식의 발화 방식이었다면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오코토바라는 표현 양식 자체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⁴⁵ 오코토바의 경우 국회 개회식이나 전국전물자추도식과 같이 정해진 말들을 매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천황 아키히토의 경우 천황이 직접 오코토바 내용 중에 문구들을 수정한다거나, 다른 문구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 왔다.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발표된 다음날 2015년 8월 15일 전국전물자추도식에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아베 담화에 대항하는 것처럼 금일의 평화가 ‘평화의 존속을 갈망하는 국민의 의식’에 의해 지지되었다는 한 구절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⁴⁶

그런 점에서 특히 천황 아키히토에게 오코토바는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말한다’는 행위는 천황에게 적합한 행위는 아니었다. 하라 다케시(原武史)가 지적하듯이 메이지 천황이든, 쇼와 천황이든 그들이 받은 교육은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천황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말을 거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쇼와 천황에게도 오코토바라는 형식이 있었고, 행행(行幸)을 통해 국민들을 만나며 대화를 했지만 말을 거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듣더라도 ‘아, 그렇습니까’ 정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열린 황실’을 목표로 했던 헤이세이 시기 황실의 태도는 180도 변화해 간담회 형식을 통해 장시간에 걸

45 메이지부터 쇼와 초기까지 천황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공간에서 많은 신민을 향해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칙어나 조서의 발표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21쪽.

46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22쪽.

쳐 일반인들과 논의하기 시작했다.⁴⁷

천황 아키히토 부부에게 ‘말한다’는 행위는 그가 황태자·황태자비 시절부터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황후 미치코는 1993년 실어증에 걸렸을 때조차 지방 주민들을 방문해 수화로 대화를 이어 가기도 했던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 주듯이 주어진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야말로 이전과는 다른 천황 아키히토와 황후 미치코가 국민들을 만나는 방식의 차이였다. 황태자 아키히토와 황태자비 미치코를 유명하게 한 것은 그들이 보여 준 무릎을 꿇고(ひざまずいて) 눈높이를 맞추며 직접 이야기를 건네고 듣는 특유의 자세 그 자체였다.⁴⁸ 천황 부부는 황태자 시절부터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닌 지역의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쇼와 시기에든 이러한 행행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집합적인 대상에게 건네는 일방적인 담화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간담회는 개별적인 대화를 중시하는 형태로 일종의 미국식의 타운미팅(town meeting)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대의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직접민주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과 행한 대화가 지방언론에 실려 문제를 가시화하게 됨으로써 해결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천황 부부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부나 국회를 매개로 하지 않고 황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갖게 만들었다.⁴⁹

이는 생전퇴위 오키토바에서 말한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이 천황에게 중요한 직무라는 자각으로 드러난다.

천황에 오르게 된 지 거의 28년으로,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때를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황의 직무로서, 무엇보다 우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47 原武史, 「『平成流』とは何だったのか」, 15~17쪽.

48 原武史, 「『平成流』とは何だったのか」, 109~110쪽.

49 原武史, 「『平成流』とは何だったのか」, 101~102쪽.

동시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에 다가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천황이 상징임과 동시에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천황이 국민에게 천황이라는 상징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천황도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각을 마음속에 기를 필요를 느껴 왔습니다.⁵⁰

물론 천황의 오코토바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통해 궁내청에서 관리되는 메시지라는 점 역시 존재하지만, 특히나 이 오코토바가 천황과 황후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준비해서 나오게 된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천황 아키히토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에 다가서는 것” 자체가 천황의 상징으로서의 직무라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천황이라는 상징의 입장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천황도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징천황제하에서 천황이 직접 상징이라든지, 생전퇴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 천황의 존재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천황은 이를 ‘기분/마음’(お気持ち)⁵¹의 표현이라는 말로 표명한다. 생전퇴위 오코토바에서 “나 개인으로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개인으로서’라는 지, ‘자신’, ‘스스로’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⁵² 언론에서도 이를 천황의 ‘기분 표명’(お気持ち表明)이라 보도했는데, 본인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발언임이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다.

50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12>

51 실제로는 생전퇴위 오코토바 마지막에 “ここに私の気持ちをお話いたしました”라고 하여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お気持ちを ‘마음’, ‘기분’, ‘생각’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천황 아키히토가 본인의 생각을 표명한다기보다는 좀 더 정동적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기분’ 내지 ‘기분/마음’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궁내청 영문판에서는 이 말은 ‘thought’로 번역된다.

52 片山杜秀・島蘭進, 『近代天皇論: 「神聖」か, 「象徴」か』, 集英社, 2017, 208~209쪽.

이는 본인 스스로 생전퇴위 오키도바가 국정에 대한 권한과 관계없음을 나타내는 자각적 표현이기도 했지만,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가 지적하듯이 감정화하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감정 천황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 오쓰카는 상징천황제의 본질은 ‘감정 노동’으로 천황은 헌법 해석을 ‘마음/기분’으로밖에 표명할 수 없으며, 국민은 이 ‘마음/기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⁵³ 생전퇴위와 관련되어 제정된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에서도 제1조에서 “이 법은 천황이 1989년(쇼와 64) 1월 7일 즉위한 이래 2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국사행위 외에 전국 각지 방문, 재해지 방문안을 비롯한 상징으로서의 공적인 활동에 힘써 오신 가운데, 83세로 고령이 되어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천황으로서 스스로 계속하기 어려울 것임을 깊이 염려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국민들은 고령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활동에 힘쓰고 있는 천황을 깊이 경애하고, 천황 폐하의 기분을 이해하며, 이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제시된다. 천황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국화 금기’(菊タブー), ‘황송하다’(おそれおい)는 감각이 존재하면서도 천황의 기분은 이해되고, 공감되어야 한다는 감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즉 천황 아키히토는 본인의 개인적인 기분을 표명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천황의 기분 표명에 공감하며 천황과 일체화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천황의 생전퇴위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생전퇴위 오키도바 발표가 있는 후 여론조사에서 89%의 국민이 생전퇴위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때 천황은 말을 걸고, 국민은 말을 듣는 방향성만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국민과의 관계에서 실재하지는 않지만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만 존재하지만 국민이 말을 걸고 천황도 말을 듣는다는 설정 역시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재해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위로의 말을 주고받는 천황 아키히토 부부가 만들어 낸 새로운 ‘헤이세이류’의 핵심이었다. 천황의 기분을 서

53 오쓰카 에이지, 선정우 옮김, 『감정화하는 사회』, 리시울, 2020, 1장 「감정 텐노제론」. 오쓰카 에이지는 이 오키도바의 해석을 통해 감정과 공감에만 기반한 비정치적인 국민통합의 문제를 지적한다.

로 공유한다는 정동이 사후적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적 신체성을 만들어 낸다. 즉 천황이란 가시적 신체는 대표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이는 ‘대의’기관이 있음에도 ‘대표’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재현’해 내는 구심점으로서 작동한다. 그것이 전후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입장이건 혹은 일본의 전통을 지키고 강화하는 보수적 입장이 되었건 그러한 모순적인 목소리가 천황이라는 동일한 존재에 의탁해 본인을 대표한다는 발상 속에서 천황제는 기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천황 본인이 자신의 상징의 의미를 스스로 위임(self-authorized)했기 때문에, 혹은 근거 없이 천황에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라고 말할 수 없다.⁵⁴ 위임받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상황, 혹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천황제라는 정치적인 픽션(fiction) 속에서 투사하는 상황이야말로 전후 상징천황제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일지 모른다.

3) 기도하는 신체와 순행하는 신체

그렇다면 천황 아키히토가 구체적으로 천황의 상징으로서의 직무를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징으로서의 직무(公務め)에 대한 천황 폐하의 말씀>에서 공무(公務)라는 표현이 아닌 직무(公務め)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⁵⁵ 주지하듯이 일본국헌법 1조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 및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천황은 국사행위 이외의 정치적 성격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거쳐 국민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천황의 국사행위로는 ①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② 국회 소집, ③ 중의원의 해산, ④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행공포, ⑤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任免)

⁵⁴ 대표와 피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Hanna Fenichel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ch. 2 참조.

⁵⁵ 하라 다케시는 천황 아키히토가 의도적으로 직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공적·사적인 쌍방의 행위를 포함하고자 한다고 해석한다.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32쪽.

로서, 무엇보다 우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 습니다만, 동시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에 다가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⁵⁷라 고 말할 때, 이는 본인의 말대로 “천황이 (일본국의) 상징”임과 동시에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분리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었다.

국사 행위 이외에 천황의 상징으로서의 직무란 천황이 ‘움직이고’ 국민 과의 교류를 심화시키면서 그 바탕 위에서 ‘기도’를 실행할 때 비로소 천황 이 지닌 ‘상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발상 위에 있다.⁵⁸ 즉 천 황 아키히토가 밝히고 있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에 다가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한 천황이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 의 상징’이라는 점에 각각 대응한다. 이 두 측면은 국사행위와 달리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황이 스스로의 직무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일본의 각지,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섬들로 여행하 는 것도 천황의 상징적 행위로서 중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황태자 시절도 포 함해 지금까지 제가 황후와 함께 수행해 왔던 전국에 걸친 여행은, 국내의 모든 곳에서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착실히 떠받친 향간의 사람들(市井の人々)이 있었음을 저에게 인식시켰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신뢰와 경애의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기도한다는 천황의 직 무를 행할 수 있었음에 행복했습니다.⁵⁹

57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12>.

58 시라이 사토시, 『국체론』, 37쪽.

59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12>.

이러한 행행(行幸)⁶⁰이나 기도는 메이지 천황 이래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천황의 직무를 규정해 왔다. 천황 아키히토 역시 황태자 시절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 거의 모든 일본의 현을 세 차례씩 방문한 바 있으며, 황거의 궁중3전(宮中三殿)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연 20여 차례의 궁중제사에 참여한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은 하나로 묶인다. 기도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영령의 위로라는 측면, 즉 이들에게 말을 걸고 듣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와 미래, 기도와 순행,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의 상징은 천황이라는 존재를 매개로 전체성으로서 하나로 결합된다.

문제는 천황 아키히토가 밝히고 있듯이 고령화하는 천황의 신체였다. 고령화를 신체의 중환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천황은 이 오코토바에서 자연적 신체의 결합 때문에 정치적 신체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고령화는 두 가지 지점에서, 즉 앞서 나온 대로 상징의 직무를 ‘전신전령’으로 할 수 없다는 자기고백에서 보이듯이 기도하는 신체와 순행하는 신체 양쪽에 문제를 가지고 온다.⁶¹ 움직이기 힘든 면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역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천황이 궁중제사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든다.⁶²

물론 제정일치적 존재로서 전전의 천황과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쇼와 시기까지 천황의 오코토바가 국민 일반을 향한, 즉 국제론적 발상에 기반하고 있다면, 앞서 나와 있듯이 천황 아키히토가 발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동체를 착실히 떠받친 항간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호명이었다. 황태자 시절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천황 아키히토 부부는

60 황실용어로 천황의 외출을 행행(行幸) 또는 幸(미유키)라 하고, 전국각지를 도는 행행을 전국순행 혹은 지방순행이라 한다. 또 황후나 황태후, 황태자의 외출을 행계(行啓) 혹은 순계(巡啓)라 하고, 이 행행과 행계를 합쳐 행행계(行幸啓)라 한다.

61 전신전령이란 말은 영문판에서는 ‘with my whole being’으로 번역된다.

62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33~34쪽.

“전국에 걸친 여행”을 통해 “국내의 모든 곳에서,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착실히 떠받친 향간의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시키게 되었다. 이를 하라 다케시는 ‘마이크로한 국제’로의 변화로 설명한다.⁶³

이때 정치에서 소외된 ‘고령자’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섬” 같은 ‘지방’은 천황 아키히토에게 특별히 주목된다. 자주 지적되어 온 것처럼 헤이세이 이후 재난을 입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약자에 공감하는 황실의 자세는 주목받아 왔다. 천황 아키히토 역시도 사회적 약자들을 격려하는 직무가 천황에게 핵심적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해가 잇따랐던 헤이세이 시대에 재해지를 찾아가고 위령의 정치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상징이라는 직무를 다해 왔다는 자기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천황 본인이 스스로를 약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테기는 이를 천황의 ‘약자정치’(minority politics)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한다.⁶⁴ 천황의 생전퇴위 오키토바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황 아키히토 본인을 약자로서 드러냄을 숨기지 않는다. 주름진 살갓과 힘없이 늙어 가는 천황의 자연적 신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천황 역시 한 명의 평범한 인간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천황이 약한 존재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발상과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정치적·영적 일체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천황의 이중성은 천황의 생전퇴위 오키토바 뒤의 배경에 놓여진 상징물 들에서도 나타난다. 비디오 메시지 형태로 발표한 오키토바에서 영상표현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는 2011년 처음으로 영상 메시지를 TV를 통해 발표한 <도호쿠지방 태평양 지진에 관한 천황 폐하의 오키토바>에서 배경 없이 천황의 자애로운 표정만 강조된 데 비하면 달라진 점이었다.⁶⁵ 생전퇴위 오키토바에서는 배경으로 천황의 뒤쪽 양옆으로 수

63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178쪽.

64 모테기는 이를 카메라의 줌인과 줌아웃, 천황의 시선 처리, 발표문을 읽는데 쉬는 부분 등에 주목하면서 ‘영상표현’으로서 천황이 강조하는 바를 분석하고 있다. 茂木謙之介, 『SNS天皇論-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38~44쪽.

65 동영상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2011년 동영상(<https://www.kunaicho.go.jp/okitoba/01/>)

석과 도자기 그릇이 배치되어 있다. 방송 직후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수석은 서일본에서, 도자기 그릇은 동일본의 재료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다. 즉 서일본과 동일본, 여기에 자연물과 인공물의 대비, 전근대로부터 귀족적인 취미를 표상하는 수석과, 민간적인 것으로 서민의 도구를 나타내는 그릇이라는 이항대립의 중간지점에 천황을 배치하여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표현하는 전략적인 의도였다.⁶⁶ 더 나아가 서일본/자연적/귀족적인 것과 동일본/인공적/서민적인 것의 대비는 기도를 통해 영적 일체성을 추구하는 ‘일본국의 상징’으로서의 천황과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이야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천황의 이중성을 재현해 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그림일지 모른다. 천황 아키히토는 이처럼 생전퇴위를 통해 본인이 재현/대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며, 스스로 자신의 신체성을 만들어 감으로써 전체성을 연기한다.

4. 나가며: 이중적 신체로서의 천황

서론에서 제기했던 상징천황제하에서 천황 아키히토는 무엇을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천황 역시 개인이라는 신체로서만이 아닌, 정치적 신체 즉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인격(person)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상징적 대표 또는 체현(embodiment)으로서의 천황은 무엇을 대표/연기하는가라는 물음이 필요하다.⁶⁷ 넓은 의미에서 대표 개념을 고려할 때 상징으로서의 천황이 가시화하는 신체성은 천황이 연기하는 대표성/정치성을 보여 준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대표하며, 세속

okotoba/tohokujishin-h230316-mov.html)과 2016년의 생전퇴위 동영상(<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12>).

66 茂木謙之介, 『SNS天皇論-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48~49쪽.

67 원래 페르소나(persona)라는 용어가 원래 배우들이 무대에서 착용하던 점토, 나무 등으로 만든 가면을 일컫는 말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관객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데이비드 런시먼, 노시내 옮김, 『대표: 역사, 논리, 정치』, 후머니타스, 2020, 36쪽.

적인 것과 성스러움을 대표하며, 주목되지 못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대표/연기한다. 그런 점에서 데이비드 런시먼이 대표 개념의 역사적 다양성에 대해서 분류하면서, 대표자가 피대표자를 닮아야 하고 피대표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회화적(pictorial) 대표나, 피대표자의 동의하에 그리고/또는 그의 이해관계 안에서, 피대표자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juridical) 대표 이외에도 대표자가 피대표자를 위해 해석하고, 발언하고, 행동하여, 그들에게 생기(life)를 부여해야 한다는 연극적(theatrical) 대표로 구분하는 점은 참조가 된다.⁶⁸

금일을 기점으로 천황으로서의 직무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을 대표해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한 말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즉위로부터 30년, 지금까지의 천황의 직무를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 속에서 행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상징으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고 지지해 준 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레이와 시대가 평화롭게 결실 맺기를 황후와 함께 마음에서 바라며, 우리나라와 세계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빕니다.⁶⁹

천황 아키히토는 퇴위식에서 오키토바를 통해 즉위로부터의 30년을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 속에서 행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상징으로서 본인을 받아들여 주고, 지지해 준 국민에게 감사해한다. 그리고 일본과 세계의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때 천황의 자기 규정은 대중들의 규정을 통해 재해석되고, 과거는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천황은 직무를 스스로 해석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며, 국민을 대표한다. 이는 과거와 미래, 권위와 권력,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의 상징, 국체와 데모크라시의 어딘가에 겹쳐 있으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를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성을 매개하는 천황이라는 존

68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데이비드 런시먼, 『대표: 역사, 논리, 정치』, 33쪽.

69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46>.

재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모테기는 이를 종교적 권위로서의 모습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혈통으로 황통을 이어 나간다는 전통주의의 회로를 암묵적으로 열어 놓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가 근대 일본의 천황관을 ‘제한군주적 천황관’과 ‘신화적·절대주의적·대권주의적 천황관’의 상극을 논하는 과정으로 파악해, 이것이 헤이세이 시기 ‘약자’와 ‘종교’라는 두 가지 이분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라 보는 이유다.⁷⁰

재위 30주년을 맞이한 식전에서 그는 헤이세이 30년간을 평가하며 일본이 국민의 평화를 회구하는 강한 의지에 힘입어 근현대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가졌음을 밝히며 와카를 인용한다.

오늘 이 기회에, 일본이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었을 때 적지 않은 관심을 보내 주신 여러 나라의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라나 국제기구 또 지역에서 진심이 담긴 원조를 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헤이세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후는 감회가 담긴 한 수의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평등하게 열린 시대를 만들겠다는 말들이 온 나라에 충만하다”(ともどもに平らけき代を築かむと諸人のことば国うちに充つ) …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 전해진 “우리도 황실과 함께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조용한 가운데에도 결의에 찬 말을 우리는 지금도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⁷¹

그는 마지막이 될 재위 기념식에서 헤이세이가 시작될 때의 황후의 와카를 인용하며, 당시 전국 각지에서도 국민들이 황실과 함께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어 간다는 결의가 가득 찼음을, 그리고 이 결의에 찬 말을 아직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과 세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⁷²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황후의 노래를 통해 전국 각

70 茂木謙之介, 『SNS天皇論-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218~219쪽.

71 <https://www.kunaicho.go.jp/page/okotoba/detail/42#152>.

72 이러한 방식은 1994년 미국 방문 환영행사 시 천황 아키히토의 오키토타에서 쇼켄 황태후가 프랭클

지에서 이에 호응하는 결의들이 생겨났음을 지적함으로써, 천황 아키히토는 과거라는 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를 통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부여되는 상징성에 천황의 의미를 맞춰 나간다.

전후 헌법이 만든 상징이라는 규정은 천황의 기분 표명이라는 형태로 밖에 상징으로서의 본인의 직무를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라기보다 천황 아키히토 본인이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직무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먼저 규정하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서 제기된다. 그렇다고 해서 천황이 이를 독단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천황상에 맞춰 천황의 직무를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능동과 수동의 이중적 관계는 천황의 지방 행행 때 숙소 밖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천황상과 반아베 노선의 기치로서 평화주의를 제창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천황상이라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상징성을 천황의 한 몸 안에 가능케 한다. 이처럼 대중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중을 추동함으로써 천황과 국민과의 모종의 협업관계가 구성된다. 이렇게 볼 때 천황 아키히토의 오키노바에서 재현하는/재현되는 천황의 이중적인 신체는 헤이세이 시대 천황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비어 있는 기표(empty signifier)로서의 천황의 모습에 가까운 것일지 모른다.⁷³

린의 12가지 덕목으로 와카를 지어 읊었음을 지적하며, 메이지 일본이 단순히 강압적으로 문물 연역사가 아니라, 미국의 건국의 덕목을 뿌리 깊게 체현하고 있었던 과거로 기억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는 “양국 간에 오랜 세월을 걸쳐 길러진 폭넓은 교류” 덕분으로 양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과거는 미일교류라는 측면이 부각되며 천황의 역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상징된다. <https://www.kunaicho.go.jp/okotoba/01/speech/speech-h06e-america.html>.

73 그런 점에서 흔히 일본사회를 분석할 때 기본되는 가정들, 가령 전전과 전후의 단절, 권위와 권력의 단절, 국체론과 전후민주주의의 단절을 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천황을 국체론과 민주주의 사이 존재로서 파악해, 이를 교토학파가 ‘무’(無) 혹은 ‘전체성’의 표현으로서 천황을 분석한 논의와 연결짓는 논의에 대해서는 田中久文, 『象徴天皇を哲学する』, 青土社, 2018.

「第193回国会 衆議院 議院運営委員会 第31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e-Gov法令検索(<https://elaws.e-gov.go.jp>)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等 校訂, 『秘書類纂 雑纂2』, 秘書類纂刊行会, 1936.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等 校訂, 『秘書類纂 雑纂3』, 秘書類纂刊行会, 1936.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 宮内庁, 1968.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2』, 宮内庁, 1975.

宮内省図書寮 編修, 岩壁義光 補訂, 『大正天皇実録 補訂版 第6』, ゆまに書房, 2021.

宮内庁, 『昭和天皇実録 第18』, 東京書籍, 2018.

尚友倶楽部・長井純市 編, 『渡辺千秋関係文書』, 山川出版社, 1994.

尚友倶楽部山縣有朋関係文書編纂委員会 編, 『山縣有朋関係文書 3』, 山川出版社, 2008.

2. 연구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加藤陽子, 『天皇の歴史 8巻: 昭和天皇と戦争の世紀』, 講談社, 2011.

國分航士, 「近代の元号」, 『歴史と地理』 731号, 2020.

坂本一登, 『伊藤博文と明治国家形成: 「宮中」의 制度化と立憲制의 導入』, 講談社, 2012, 초판은 吉川弘文館, 1991.

鈴木洋仁, 『「元号」と戦後日本』, 青土社, 2017.

鈴木洋仁, 「『天皇=元号=時代』의 崩壊 時代語る意味問い直しを」, 『Journalism』 347号, 2019.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雄山閣出版, 1993.

所功 編著, 『日本年号史大事典〔普及版〕』, 雄山閣, 2017.

西川誠, 「大正後期皇室制度整備と宮内省」, 『年報・近代日本研究』 20号, 1998.

西川誠, 『天皇の歴史 7巻: 明治天皇の大日本帝国』, 講談社, 2011.

西川誠, 「皇室典範の制定: 明治の皇位継承」, 歴史学研究会 編, 『天皇はいかに受け継がれたか: 天皇の身体と皇位継承』, 積文堂出版, 2019.

野村朋弘, 『諡: 天皇の呼び名』, 中央公論新社, 2019.

오코토바를 통해 다시 묻는 '상징'의 의미: 헤이세이 시대 천황의 이중성 | 김태진

가사하라 히데히코, 유지아 옮김, 『상징 천황제와 황위 계승』, 경인문화사, 2020.

김범수 외, 『근대 일본의 번역과 정치: 대의정체 개념의 수용과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김승배, 「권력이 아닌 권위의 침투: 상징 천황에 관한 고찰」, 『문화와 정치』 Vol. 8 No. 2, 2021.

김태진, 「우주 대생명의 표현으로서 신도론: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론의 지성사적 의미」, 『일본비평』 28호, 2023.

비에이라, 모니카 브리투·데이비드 런시먼, 노시내 옮김, 『대표: 역사, 논리, 정치』, 후머니타스, 2020.

시라이 사토시, 한승동 옮김, 『국체론』, 메디치, 2020.

오쓰카 에이지, 선정우 옮김, 『감정화하는 사회』, 리시울, 2020.

요나하 준, 이충원 옮김, 『헤이세이사 1989~2019: 어제의 세계, 모든 것』, 마르코폴로, 2022.

유지아, 「전후 상징천황제의 정착 과정에 나타난 천황대권의 모호성」, 『일본공간』 11, 2012.

- 유지아, 「메이지유신 150년과 천황의 원수화」, 『일본역사연구』 48집, 2018.
- 이상진,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체제와 「생전퇴위」」, 『일어일문학』 92집, 2021.
- 하라 다케시, 박이진·주미에·김수용·박시언 옮김, 『여제의 일본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 石川健治, 「権力とグラフィクス」, 長谷部恭男·中島徹, 『憲法理論を求めて: 奥平憲法学の継承と展開』, 日本評論社, 2009.
- 大澤真幸, 「天皇制から読み取る日本人の精神のかたち」, 原武史·菅孝行·磯前順一·島蘭進·大澤真幸·片山杜秀, 『これからの天皇制: 令和からその先へ』, 春秋社, 2020.
- 片山杜秀·島蘭進, 『近代天皇論: 「神聖」か, 「象徴」か』, 集英社, 2017.
- 河西秀哉, 『「象徴天皇」の戦後史』, 講談社, 2010.
- 河西秀哉 編, 『戦後史のなかの象徴天皇制』, 吉田書店, 2013.
- 河西秀哉, 「近代天皇制から象徴天皇制へ: 象徴への道程」, 吉田書店, 2018.
- 下條芳明, 「象徴天皇制の制度と理論: 代表制論, 君主論および元首論の現代的脈絡において」, 『商経論叢』 51(2), 2010.
- 下條芳明, 「象徴天皇制の戦後的展開と天皇の「公的行為」」, 『商経論叢』 55(2), 2014.
- 下條芳明, 「「象徴」の由来, 受容および普及をめぐる: 日本特有「二権分立制」の再生」, 『法政治研究』 3, 2017.
- 田中久文, 『象徴天皇を哲学する』, 青土社, 2018.
- 田村安興, 「象徴天皇と神話: シラスとウシハクをめぐる」, 『高知論叢』 第100号, 2011.
- 長崎浩, 『国体と天皇の二つの身体: 未完の日本国家物語』, 月曜社, 2022.
-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への道: 米国大使グルーとその周辺』, 岩波書店, 1989.
-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岩波書店, 2019.
- 原武史, 「「平成流」とは何だったのか」, 原武史·菅孝行·磯前順一·島蘭進·大澤真幸·片山杜秀, 『これからの天皇制: 令和からその先へ』, 春秋社, 2020.
-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 講談社選書メチエ, 2022.
- 吉田茂, 『回想十年』 2巻, 新潮社, 1957.
- 吉田裕·瀬畑源·河西秀哉 編, 『平成の天皇制とは何か: 制度と個人のはざま』, 岩波書店, 2017.
- Kantorowicz, Ernst H.,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UP, 1997[1957].
- Pitkin, Hanna Fenichel,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Stokke, Kristian and Elin Selboe, "Symbolic Representation as Political Practice," *Rethinking Popular Representation*, Palgrave Macmillan, 2009.
- 궁내청 홈페이지(<https://www.kunaicho.go.jp>)(최종 검색일: 2024. 1. 5.)

SNS 시대의 천황제: 약자 정치와 영성(spirituality)의 역학 | 모테기 겐노스케

〈도서〉

青木淳子, 『近代皇族妃のファッション』, 中央公論新社, 2017.

伊藤慎吾 編, 『妖怪 憑依 擬人化の文化史』, 笠間書院, 2016.

특집 | 헤이세이(平成) 30년, '상징'천황제의 생존 전략을 묻는다

시대의 상징으로서 근현대 일본의 연호와 시호 | 박완

본고는 일본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근현대 천황제에 수반된 연호와 시호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성립 과정, 새로운 전통이 출현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참여 욕구, 폐전과 민주화가 연호와 시호에 초래한 위기와 국민 참여 문제를 포함하는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변용하여 오늘날까지 생존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근대 최초의 천황인 메이지 천황의 즉위 및 개원 이후 일세일원제, 연호 심의 절차 간소화, 천황 위 계승 후 개원, 생전 퇴위 금지 등 연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하에 4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황실전범 및 등극령 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다만 황실상의령은 메이지 천황의 생전에는 끝내 재가되지 못하면서 시호는 제도화되는 데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고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호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했다. 또한 천황이 생전에 사용한 연호를 시호로 사용하는 새로운 관행의 출현에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을 '일등국'이자 제국으로 만든 메이지 천황이 일생 동안 사용한 연호를 시호로 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가 결합하고 천황이 교대될 때마다 반복되었으며, 또 황실상의령이 제정되면서 시호도 제도화되었다.

한편 폐전과 점령, 민주화를 계기로 황실전범, 등극령, 황실상의령이 개정·폐지되고 연호 폐지론이나 국민 공모론 등이 등장하면서 연호와 시호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원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내각 주도의 연호 선정을 규정하고 종신 재위 및 일세일원제를 부활시켰으며, 또 시호 문제에서도 국회 측의 관여를 배제했다. 그리고 전후 최초의 천황 교대에서는 전전의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를 재확인했고, 최근에 있었던 천황의 생전퇴위 및 상황 호칭 부활도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했다. 이처럼 시대의 상징으로서 연호와 시호의 지위는 전전과 전후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역으로 천황제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주제어: 연호, 시호, 일세일원제, 일원일호제, 황실전범, 등극령, 황실상의령, 원호법, 메이지 천황, 이토 히로부미

오코토바를 통해 다시 묻는 '상징'의 의미: 헤이세이 시대 천황의 이중성 | 김태진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의 오코토바를 문학적·사상사적·정치적 텍스트로서 다루고자 한다. 2016년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천황 폐하의 말씀」은 천황 자신이 상징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규정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징이란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애매한, 혹은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후 헌법에서 '상징'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배경을 볼 때도,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천황을 규정하는 방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전후의 상징천황제하에서 천황의 직무 역시 단순히 비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의 오키노보라를 분석하면서 그가 스스로를 재현하는 신체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가 그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욕망을 재현/대표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는 천황이 고령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령화하는 신체를 넘어 제도로서 재생하는 신체를, 말하고 듣는 신체성을 통해 정동의 공동체를, 기도하고 움직이는 신체를 통해 일본국민의 통합과 일본국이라는 상징성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천황 아키히토는 과거와 미래, 권위와 권력,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의 상징, 국체와 데모크라시라는 이중성을 재현하는데, 이는 헤이세이 시대 천황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를 구성한다.

주제어: 아키히토, 천황, 오키노보라, 헤이세이, 상징, 대표

SNS 시대의 천황제: 약자 정치와 영성(spirituality)의 역학 | 모테기 겐노스케

본 논문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침투한 2010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과 황실을 둘러싼 미디어 표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9년 레이와 개원 전후로 일본정부는 황실의 인기를 이용했고, 그에 비해 황실은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는 개원의 원활한 실시를 기대한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의도와 공범 관계를 맺었다. 또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에 약자 정치와 영성에 관한 서사가 제시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에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넘어갈 때 소셜 미디어 담론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매스미디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원이라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넘쳐났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벗어난 잠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소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천황제를 둘러싼 이야기 해석의 가능성을 지켰다.

주제어: 천황(제), 미디어 표상, 소셜미디어(SNS), 개원, 내셔널리즘, 아키히토 천황, 약자 정치, 영성

천황제와 성차별·이성애주의의 재생산: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증언을 향해 | 호리에 유리

근대천황제는 일본사회의 성차별이라는 규범을 재생산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징천황제라는 국가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국가체제를 문제 삼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의 황위계승을 통해 일본사회의 상황을 그려 낸 후에, 황위계승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 문제를 밝혔다. 이미 일본 페미니즘에서는 천황제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 제기 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관습에도 젠더 역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성애주의라는 관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성중심주의와 이성애주의 양쪽에서 타자화된 ‘레즈비언’이라는 위치성(positionality) 개념을 통한 잠정적인 분석도 제시해 둔다.

주제어: 상징천황제, 황위계승, 황실전법, 여성·여계천황, 반천황제운동, 가족국가관

‘지속 가능한’ 천황가 서사와 시선의 권력: ‘마사코 황후’에 대한 대중의 판타지와 관음적 시선 | 박이진

이 글은 상징천황제 이후 천황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 변화를 ‘마사코’라는 기표를 통해 살펴본

lifelong reign and the one-era-one-name system.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e National Diet's involvement in the issue of posthumous titles was excluded. When the first succession to the throne after the war occurred, the prewar systems of one-era-one-name and one-name-one-title were reaffirmed. And the recent revival of abdication before the emperor's death and the title of emperor emeritus were also regarded as exceptional events. In this way, the status of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as symbols of the times continues throughout prewar and postwar periods and to this day,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survival of Japanese emperor system.

• **Keywords:** Era Name, Posthumous Title, One-Era-One-Name System, One-Name-One-Title System, Imperial House Law, Ascension Ordinance, Imperial House Funeral Ordinance, Era Name Act, Emperor Meiji, Ito Hirobumi

The Meaning of 'Symbols' Revisited through Okotoba: The Duality of Emperors in the Heisei Period | KIM Taejin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Emperor Akihito's Okotoba as a literary, ideological, and political text. "Message from His Majesty: The Emperor (August 8, 2016)" is a text where the Emperor himself defines the role of the emperor as the symbol of the state. Here, it is worth recalling that the concept of a symbol itself is an ambiguous and politically charged term from the beginning. In this vein, und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in postwar Japan, the emperor's duties cannot be regarded simply as non-political. This study focuses on the body politic through which the Emperor represents himself by analyzing Emperor Akihito's Okotoba. Through this, I reveal how the Emperor intends to represent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mperor Akihito is planning the body politic regenerated in an aging society as an institution, creating a community of affect through physicality that speaks and listens to the people, and functioning as the symbol of the state and the unity of the people through the body that prays and travels. As such, Emperor Akihito represents the duality of the past and the future, authority and power, a symbol of the Japanese state and unity of the people, and the kokutai and democracy.

• **Keywords:** Akihito, Emperor, Okotoba, Heisei, Symbol, Representation

Japanese Emperor System in the Era of Social Media: The Dynamics of Underdog Politics and Spirituality | MOTEGI Kennosuk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Emperor and the Imperial Family in Japanese society during the 2010s, a period marked by a widespread adoption of social media.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the period preceding and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the Heisei to the Reiwa era, the Japanese government exploited the popularity of the Imperial Family, despite the Family's expression of their will to mainta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government. However, Emperor Akihito's speech anticipated a smooth transition to the new era,